

이 책은 베스티안재단의 2018년 멘토링 프로그램

“화상환자-보호자 멘토링 I&MOM(아이엔엠) 4기”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화상의 아픔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참 어려웠지만,

사고를 겪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소한 위로가 되길 바라며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책에 담긴 진심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도 울림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 세상 누구도 더 이 세상 화상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집을 벗어던진

# 까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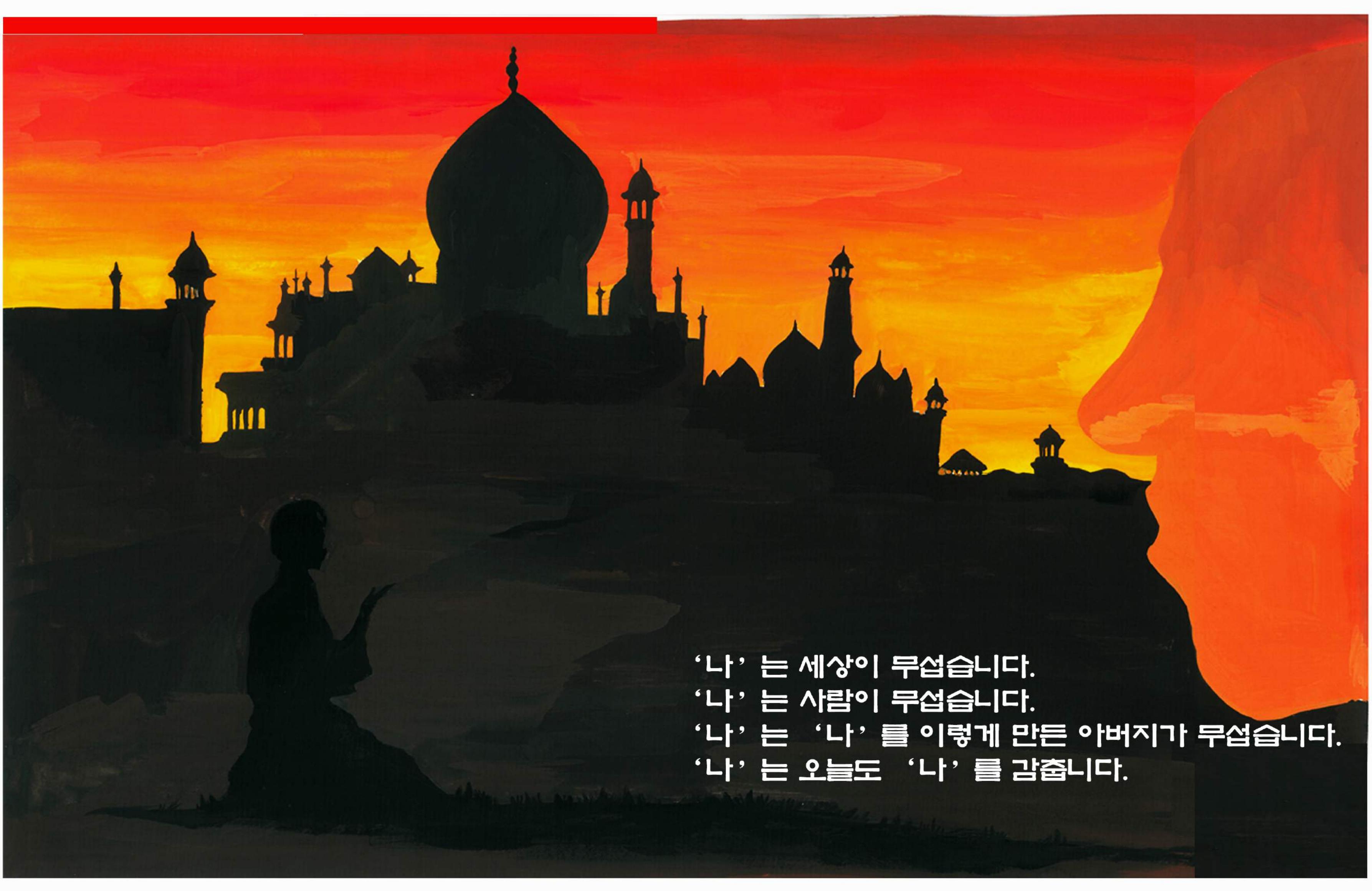
자은이 박예림

그린이 차재현



- 베스티안재단의 2018년 멘토링 프로그램 “화상환자-보호자 멘토링 I&MOM(아이엔엠) 4기”는 (주)셀리턴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 책의 그림은 한성대학교 회화과 학생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세상이 무섭습니다.  
‘나’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나’는 ‘나’를 이렇게 만든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감춥니다.



‘나’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어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나’는 되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어느 날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어느 날은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으며

어느 날은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그 중 가장 되고 싶었던 것은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빠 몰래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공부하는 것을 싫어해요.  
아버지가 책 읽는 것을 싫어해요.  
아버지는 무언가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저 빨리 돈 많은 누군가와 결혼하기를 원해요.



‘나’는 화가 난 아버지가 무서워요.  
‘나’는 아버지와 부딪히기 싫어요.  
‘나’는 혼나기 싫어서 아버지 몰래 나가요.



어느 날 나는 소리를 지르며 잠을 깼어요.  
내 앞에 양동이를 든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술에 취해 흥분한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결혼 안하고 공부하는 똑똑한 딸년은 필요없다.”

내 집에서 나가!  
‘나’는 펄펄 끓는 물을 뒤집어 쓴 얼굴을 감싸고  
울부짖었어요.

‘나’는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얼굴과 목에 남은 흉터를 없앨 수 있나요?’

‘나’의 물음에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절망적이었어요.



‘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이 얼굴로 학교를 다닐 수도 없어,  
아마 의사도 되지 못할 거야...”  
‘나’는 밤새 울었고 좋아하는 책도  
읽지 않았어요.



‘나’는 방안에서도 히잡을 썼어요.  
히잡은 ‘나’의 얼굴과 목을 가려주었어요.  
‘나’는 히잡이 익숙해졌어요.



아버지가 미웠지만 엄마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나’는 방을 나와 집 밖으로 나왔어요.  
‘나’는 엄마를 따라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향했어요.



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이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기가 무서웠어요.  
‘나’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멀찌감치 않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빈민가에서 태어난  
나를 무시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경쟁자가 되지 못했고  
동반자도 아니었으며  
우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시장 후보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비록 여성일지라도  
빈민가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장애를 가졌을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생각했어요.  
‘나’는 창문으로 비추는 햇살을 보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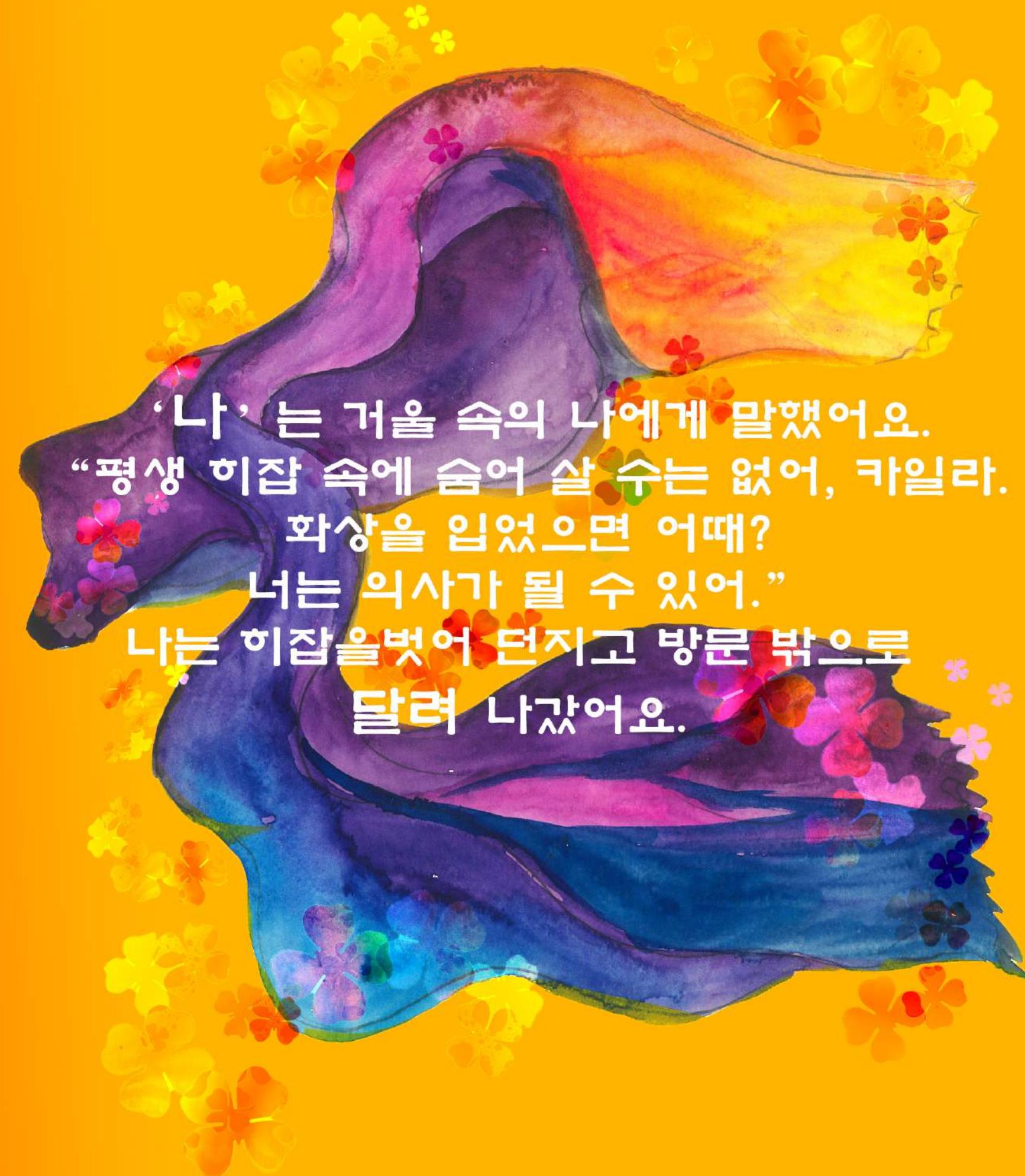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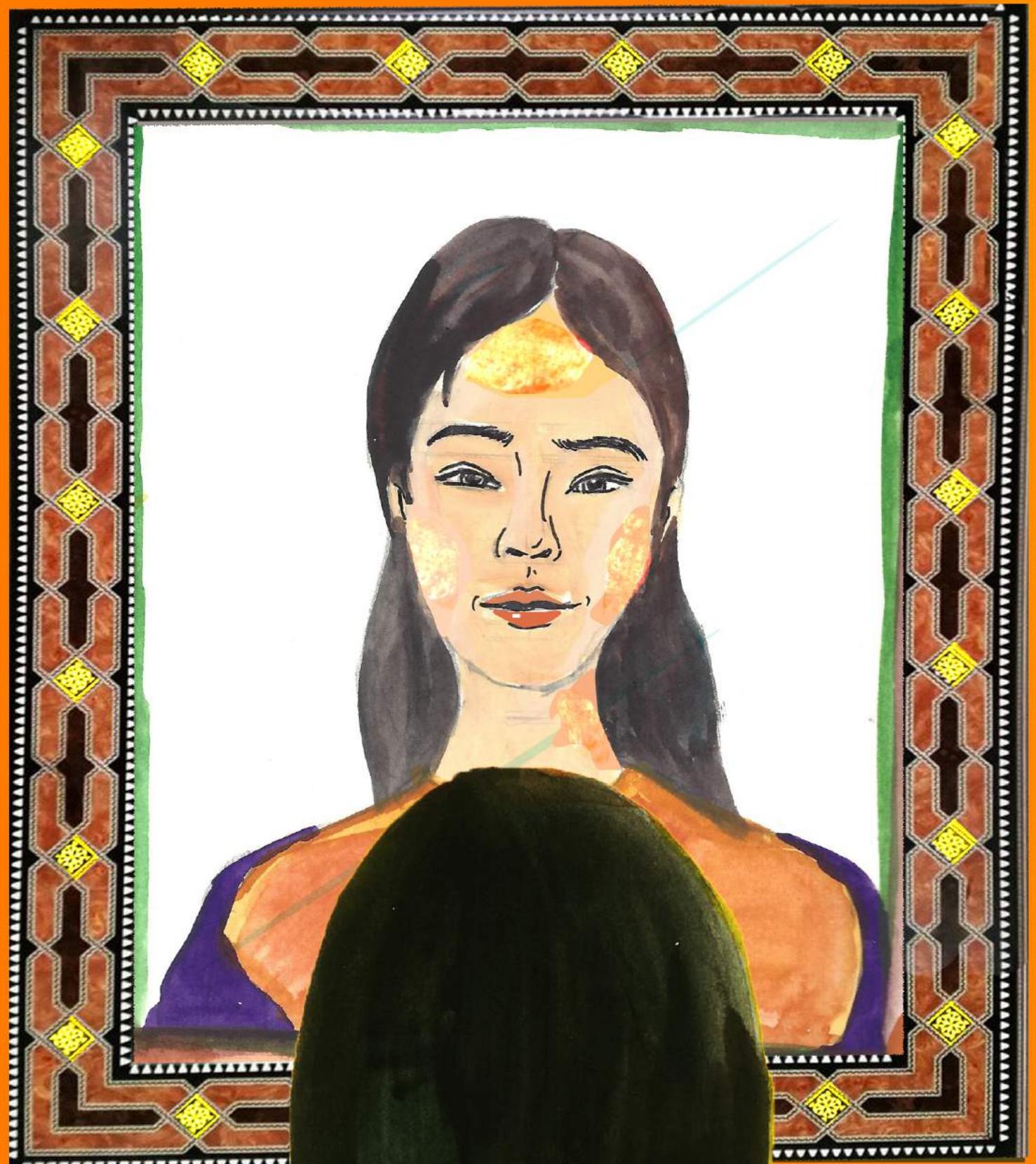
‘나’는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나’는 천천히 히잡을 벗었어요.



화상을 입은 얼굴보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히잡이 더 흥측했어요.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의 ‘나’도 나를 바라보았어요.





## 참여자 소감



작년에 참여했던 작업이 제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쉬워서  
올해 다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멘토링 동화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출중하신 김향이 작가님의 지도아래  
좋은 동화책이 나올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동화책이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12월

지은이 김향



동화 일러스트라는 봉사를 단순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동화 내용에 맞게 글을 쓴다는 것이 어려웠지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동화책이 화상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또한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좋은 분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그린이 차재현

## 하잡을 벗어던진 카일라

© 박예림, 2018

지은이 박예림

그린이 차재현

편집 민보경

펴낸곳 베스티안재단(<http://ibestian.org>)

자문 김향이(글, 그림) 정현이(그림)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은이와 베스티안재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